

‘Y’자형 모서리를 바라보는 사진의 상상력

김도균 <W> 2008. 9. 23~10. 14 갤러리2

김도균의 사진은 아날로그적 감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의 작품에서는 딱히 ‘아날로그적이다’라는 어떠한 해석의 기준점을 찾을 수 없다. 도시적이면서도 미니멀리즘의 간결함을 느끼게 하는 그의 작품은 모더니즘 건축의 세련미와 공간과 면에 대한 집요한 분석적 관찰에서 오는 절제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번 전시 <W>에서는 총 18점의 사진 작품을 선보였는데 대부분이 모노톤의 단정한 벽면 모서리를 찍은 것들이다. 전면이 흰색으로 칠해진 갤러리에 ‘화이트’를 강조한 밝은 회색풍의 작품들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전시 공간을 하나의 벽면으로 받아들이게끔 한다.

이번 전시에서 보여진 김도균의 작품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로 세 개의 선들이 하나의 중심점으로 모여드는 선의 모임과, 세 선의 경계를 따라 퍼지는 넓거나 혹은 좁은 면들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 그 선들과 면들을 모두 담아내는 사진이라는 사각 프레임이 있다. 선과 면, 그리고 사진 프레임이 그의 작품을 구성하는 기본형이 되는 것이다. 이 기본형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두 면의 벽면과 한 면의 천장이 만나는 ‘Y’자형 벽면 모서리로 구성된다. 그 모서리의 ‘Y’가 사진이라는 사각 프레임 안에서 어떻게 위치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흥미롭다. 사각 프레임의 사진 안에서 두 개의 끝 지점이 선과 면이 만나는 ‘Y’ 모서리와 만나는가 하면, 프레임의 수직면 2/3 지점에 위치하는 등 ‘Y’의 벌어진 각도에 대한 변화를 볼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움푹 들어간 벽면 모서리를 드러내고 있지만 그것이 육면체의 돌출된 면, 즉 튀어나온 모서리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착시 효과는 깨끗하게 정리된 선들의 꼭짓점과 빛에 의해 구분되는 면의 삼박자에서부터 온다. 가장 들어간 곳이 가장 돌출된 곳으로 인식되는 지점에서 빛은 어둠과 밝음의 경계를 꼭짓점으로 모아 들이고, 중간 톤의 빛면으로 두 대비되는 면들을 단단하게 잡아 준다. 이것이 바로 소묘의 삼 단계이다. 그의 작품이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통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다. 실제 공간을 마치 연필로 그려 놓은 듯한 효과를 내는 흑백의 색면은 그림과 사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면과 면의 표면적 재질감은 마치 소묘에서 연필로 그린 선들의 중첩처럼 단계적인 빛의 변화를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그의 작품은 들어감과 나옴의 공간적 착시 효과와 소묘(회화)와 사진의 영역적 착시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초현실적 혹은 가상이라 불리는 이러한 착시는 그것이 현실 공간의 벽면 모서리라는 지점을 확인할 때 비로소 의미가 생성된다. 따라서 그의 작품은 작품을 구성하는 벽면 모서리의 꼭짓점을 인식함에 있어 사진이라는 매체의 단선적인 시각(카메라를 통해 주어진 시각)의 효과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작가는 묻는다. 카메라의 현실 공간이 회화적 공간으로 치환, 혹은 전이될 있는가? 즉, 3차원의 공간이 평면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그렇기에 작가는 ‘Y’자형 벽면의 실제 공간을 평평하게 눌러 놓았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그 눌러 놓은 공간이 다시금 회화적 언어로 발화되어 원근법적 재현 공간, 즉 튀어나온 모서리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사진은 회화로 가고자 하지만 그 회화는 실제 공간을 충실하게 재현하고자 하는 이중적인 줄다리기가 바로 김도균의 작품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

그러나 그의 작품이 이 지점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의 매체적 실험으로 국한될 것이다. 여기에서 그의 작품을 더욱 강렬하게 만드는 세 번째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벽지나 벽돌, 혹은 천장에 붙여진 격자 천의 재질감 등 회화적 선과 면의 구조를 깨뜨리는 실재하는 질료적인 차원의 오브제가 더해진다는 점이다. 즉, 사진으로 회화의 구조를 드러내고자 하지만 결국 그것은 실제의 공간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왜 필자는 회화와 사진에 집착하는가? 그것의 그의 작품이 선과 면이라는 회화의 기본 구조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원근법적 소실점의 극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회화의 언어이다. 실재하는 것들을 찍은 사진이 말하고자 하는 체계는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사진 매체 역시 회화적 구조 속에서 평평하게 재구성됨을 드러내고 있는 그의 작품은 건축 구조물의 모서리와 같은 도시의 인공적인 공간과 오랜 전통의 회화적 체계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를 좁힌다.

그가 사진의 체계, 즉 사진의 사실성을 비사실성으로 간주하고 회화의 공간으로 옮겨 가는 과정에서의 실험들, 이것이 바로 그의 작품을 살아 숨쉬게 한다. 먼지 낀 건물 모서리의 지저분함, 금이 가고 심지어 거미줄이 쳐진 공간의 벽면 모서리를 바라보는 작가의 감성이 묻어 있는 네모난 사진 프레임은 조용하면서도 강력하게 관객들에게 말을 건네는 듯하다. “공간 모서리의 꼭짓점을 바라보고 있는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고.

백곤_미학

PHOTONET 2008 11 전시 리뷰